관계부처합동 보도설명자료 대제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 11. 26.(목) 08:00

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재정(예산)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내 친환경차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11.26.(목) 서울경제는 '稅혜택 줄인만큼 보조금 준다더니 전기승용차 구매보전 예산은 0원' 제하 기사에서,

○ "정부가 전기·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분을 구매 보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27년도 예산안에는 승용차 보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"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 부처 입장>

□ 금번 전기차·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는, 그간의 일률적 지원을 맞춤형 지원(구매보조금)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.

○ 개별소비세 감면에 비해 구매보조금은 선별지원이 가능하고,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, R&D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친환경차의 국내 생태계 육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'27년 전기차 구매자 혜택에 있어서도, 출고가격 5,500만원 이하 국산 전기차 구매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에 대한 영향이 없으며, '27년 개별소비세 조세지출 감면 예상액(0.1조원)보다 많은 0.3조원*의 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* 전기승용차 예산/물량 : ('26년) 0.8조원/26만대 → ('27년) 1.1조원/37만대

○ ’27년 수소전기차의 경우에도 출고가격 8,250만원 이하 차량은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.

□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기획예산처	예산실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	책임자	과 장 김의영 (044-214-2570)
		담당자	사무관 이윤혁 (kkuljam@korea.kr)
재정경제부	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	책임자	과 장 김완수 (044-215-43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정아 (jjong2306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